

The Gospel of Mark

Sermon 18: Sermon Notes

Title: "Legion vs Jesus round 1"

Scripture: Mark 5:1-10

Date preached: January 1st 2023

Scripture: Mark 5:1-10

1 Then they came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to the country of the Gadarenes. **2** And when He had come out of the boat, immediately there met Him out of the tombs a man with an unclean spirit, **3** who had *his* dwelling among the tombs; and no one could bind him, not even with chains, **4** because he had often been bound with shackles and chains. And the chains had been pulled apart by him, and the shackles broken in pieces; neither could anyone tame him. **5** And always, night and day, he was in the mountains and in the tombs, crying out and cutting himself with stones.

6 When he saw Jesus from afar, he ran and worshiped Him. **7** And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said, "What have I to do with You,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 implore You by God that You do not torment me."

8 For He said to him, "Come out of the man, unclean spirit!" **9** Then He asked him, "What is your name?"

And he answered, saying, "My name is Legion; for we are many." **10** Also he begged Him earnestly that He would not send them out of the country.

1 예수님의 일행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2**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3** 그는 공동 묘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 둘 수가 없고 쇠사슬마저 소용이 없었다. **4** 그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였으나 그것들을 끊고 부수어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 내지 못하였다. **5** 그는 밤 낮 공동 묘지와 산 속을 돌아다니며 소리지르고 돌로 제 몸을 해치곤 하였다. **6**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와 절하며 큰 소리로. **7**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8** 이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9** 예수님이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리고 그는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review what we studied last time. Last time we finished chapter 4. It was as I'm sure you remember Mark's account of Jesus calming the storm.

I told you last time that the calming of the storm was the first of four miracles that Mark has purposefully grouped together. The miracles are as follows;

1 Calming the storm**2 Healing the demoniac****3 Healing the woman with a flow of blood****4 Raising Jairus' daughter.**

Later we will look at the second miracle on the list. Before we do that let us briefly review the first miracle.

Mark tells us that after a very busy day of preaching, teaching and healing Jesus told the disciples they were to go on a boat trip. They were to travel across the Sea of Galilee from west to east. For experienced sailors this journey of around 8 miles would have been nothing out of the ordinary. As Jesus and the disciples set off Mark includes a detail that only he mentions. It is that other small boats went along with Jesus. So off this flotilla sets. The Lord Jesus was understandably tired after a long day. In the stern of the boat was a cushion set aside for the person who steered. Jesus made himself comfortable on this cushion and went to sleep. Whilst He slept a great storm arose. As I have mentioned several times this is quite common in this area. The geography along with the varying air pressure means that sudden strong winds and whip across the sea and cause big waves often with little or no warning. This is what happened on this particular night. Large waves beat against and spilled into the boat. All the disciples were terrified. Even those who were fishermen, and must have experienced similar storm conditions thought they were doomed. How did these men respond?

Not well. They angrily awake Jesus from His sleep. Their anger comes from their belief that Jesus is unconcerned, or does not properly care about this situation. Here they are in extreme peril and He is sleeping. They think He should be helping in a practical way. Perhaps bailing out the water or trying to row the ship to safety. I think from a human perspective we can understand their thinking. When a crisis comes we expect everyone to help out. But Jesus was not troubled by the storm. He knew that as its creator He had ultimate power and authority over it.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는 4 장을 마쳤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마가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폭풍의 잔잔함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룹화한 네 가지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풍을 진정시키다 2 악마의 치유 3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심 4 야이로의 딸을 키움. 나중에 우리는 목록에서 두 번째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 전에 첫 번째 기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 여행을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숙련된 선원들에게는 약 8 마일의 이 여정이 평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시작한 것처럼 마가는 그가 언급한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다른 작은 배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함대 세트를 해제합니다. 주 예수님은 긴 하루를 보낸 후 당연히 피곤하셨습니다. 배의 고물에는 배를 조종하는 사람을 위해 따로 마련된 방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방석에 편히 앉으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분이 주무시는 동안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이것은 이 분야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변화하는 기압과 함께 지형은 갑작스러운 강한 바람과 바다를 휘젓고 경고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종종 큰 파도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특별한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큰 파도가 배에 부딪쳐 배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도 비슷한 폭풍 상황을 겪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좋지 않다. 그들은 화를 내며 예수를 잠에서 깨웁니다.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이 무관심하거나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분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분이 실질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물을 퍼내거나 배를 안전한 곳으로 노를 저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모두가 도와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우에 시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의 창조자로서 그분이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권능과 권위를 갖고 계심을 아셨습니다.

As I wrote this I thought about another king in history. His name was Canute the Great, and he ruled England from 1016 – 1035 AD. History remembers him as being a wise and brave king who later in life converted to Christianity and proudly defended the faith. He is however perhaps best known for his confrontation of the sea. As with many powerful people he was surrounded by many sycophants. His many flatterers frequently told him how wonderful and powerful he was. Even nature itself he was told would obey him. Over time Canute grew tired of their flattery and decided to teach them a lesson. One day he told them to follow him to the sea shore. Once there he asked them if they thought he was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They of course agreed that he was. He then asked for his throne to be carried to the waters edge. Sitting down he commanded the sea to stop moving forward. Of course the tide kept coming in eventually covering the kings feet. Then rising he said to the flattering courtiers, "'Stop your foolish flattery. Remember that God is the only Almighty who rules everywhere. Only God can stop the sea.'" King Canute was indeed a wise man.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역사상 또 다른 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누트 대왕이었고 그는 서기 1016 년부터 1035 년까지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자랑스럽게 신앙을 수호한 현명하고 용감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바다와의 대결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권력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많은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아첨꾼들은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강력한지 그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연 자체도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Canute 는 그들의 아첨에 싫증이 나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 해변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가 그렇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왕좌를 물가로 옮기도록 요청했습니다. 앉아서 그는 바다에게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조수는 계속해서 들어왔고 결국 왕의 발을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일어나 아첨하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누트 왕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How does Jesus respond to the crisis? He stands and rebukes the wind and sea. He tells them to be still and at peace. They instantly obey Him and a great peace replaces the storm. The Lord Jesus then turns to the disciples and rebukes them for their lack of faith. They had seen Him do many amazing things. Why then did they think they were in real danger. The story ends with the disciples being afraid. They had witnessed Jesus doing amazing things but this was something different. To have power over the natural world. To be able to speak and have it obey you. They feared because they realised who exactly it was that was in the boat with them. This was not just a man with extraordinary powers, this was God Himself.

Today we will look at the events that happen after they land safely following the storm. Before we do let us pray.

예수님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들에게 고요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즉시 그분께 순종하고 큰 평화가 폭풍을 대신합니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그분이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들이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야기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했지만 이것은 뭔가 달랐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당신에게 복종하게 하려면. 그들은 그들과 함께 배에 탄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폭풍우에 따라 안전하게 착륙한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기도합시다.

1 Then they came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to the country of the Gadarenes.

Mark tells us that without further incident Jesus and the disciples arrive in the country of the Gadarenes. There is some debate as to where exactly this was. We have some ancient manuscripts that say Gerasa, Gergesa or Gadara. The confusion lies in the fact that the town of Gerasa was around forty miles from the lake, and Gadara was only six miles away from the lake. So we cannot say with absolute certainty where this event took place. But we should not see this as a problem. Mark you see is describing a region or area rather than a specific place. We do the same thing today. We say "Anyang" for example to refer to a larger geographic area than just central Anyang or the main railway station.

This region was interesting in that it was primarily home to Gentiles. Of course there were Jews living in this region, but the major towns and cities were occupied with citizens who were culturally more Greek than Semitic. This explains why there was people were raising pigs in the area. Something not permitted for Jews. This serves as a good reminder that though the gospel came first to the Jews it was not exclusively for them. The good news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is intended for everyone. Let's read on.

마가는 더 이상의 사건 없이 예수와 제자들이 가다라 사람의 나라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Gerasa, Gergesa 또는 Gadara 라고 말하는 고대 사본이 있습니다. 혼란은 게라사 마을이 호수에서 약 40 마일 떨어져 있고 가다라는 호수에서 불과 6 마일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보는 마크는 특정 장소가 아닌 지역이나 지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안양 중앙역이나 주요 기차역보다 더 넓은 지리적 영역을 가리킬 때 "안양"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주로 이방인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주요 마을과 도시에는 문화적으로 셈족보다 그리스인이 더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돼지를 기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대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지만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2 And when He had come out of the boat, immediately there met Him out of the tombs a man with an unclean spirit, 3 who had *his* dwelling among the tombs; and no one could bind him, not even with chains, 4 because he had often been bound with shackles and chains. And the chains had been pulled apart by him, and the shackles broken in pieces; neither could anyone tame him. 5 And always, night and day, he was in the mountains and in the tombs, crying out and cutting himself with stones.

As soon as Jesus exits the boat He is approached by a demon possessed man. I imagine that this was a somewhat scary encounter. Perhaps the disciples were worried or apprehensive when they saw this wild looking man approach. The other Synoptic gospels also recount the same story (Luke 8:26-39, Matthew 8:28-34). Matthew, however tells us that there were two demon possessed men. Is this a contradiction? No, a contradiction occurs only if one statement makes the other impossible and there is absolutely no way for them to be reconciled. Let me give you an example.

► **Statement 1 – There is one apple on the table.**

► **Statement 2 – There are two apples on the table.**

Both of these statements cannot be true at the same time. If there is only one apple on the table then statement two is false. If there are two apples on the table then statement 1 is false. This represents a contradiction. But, if I say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it could be that there is one or more than one. I am not specifying a particular number. Perhaps there are two, but I am only able to see one. Therefore it is not a contradiction.

So there may have been two demon possessed men but Mark focuses his attention on just one of the men in his account. Perhaps he decides to tell us the story of the man most seriously affected. Mark gives us here the most detailed account of demonic possession in the bible. So if you want to know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demon possession this passage is worthy of careful study.

Today many Christians are rather dismissive of the supernatural world. They might acknowledge that it exists but after that never give it much thought. Sadly we don't spend much time talking about, or being educated on the demonic realm. The study of the demonic world is known as demonology. There was a time when Christians were taught and prepared for the spiritual fight. But not these days.

If we think about it at all we think about it happening long ago and far away. Not as something taking place in our modern technological world. Be under no illusions. The supernatural world is all around us. Satan and his demonic forces are active today. They can and do possess people. They cannot possess you if you have the Holy spirit living within you but they certainly can oppress you and make your life difficult. So we would be wise to learn what we can about this subject. Let's look at what we are told here about this man.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마귀 들린 사람이 다가옵니다. 다소 무서운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거칠게 생긴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걱정했거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눅 8:26-39, 마태복음 8:28-34). 그러나 마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까? 아니오, 모순은 한 진술이 다른 진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화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내가 당신과 예를 들어 보자. ►진술 1 – 탁자 위에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진술 2 – 탁자 위에 두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이 두 진술은 동시에 참일 수 없습니다. 테이블에 사과가 하나만 있으면 두 번째 진술은 거짓입니다. 테이블 위에 두 개의 사과가 있다면 명제 1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모순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다고 하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특정 번호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 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명의 악귀 들린 사람이 있었을 수 있지만 마가는 자신의 기록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주의를 집중합니다. 아마도 그는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귀신들린 것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림의 특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악마의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교육받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악마 세계에 대한 연구는 악마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가르치고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래 전에 그리고 멀리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현대 기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환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초자연적인 세계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귀 세력은 오늘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을 소유할 수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들은 당신을 소유할 수 없지만 확실히 당신을 억압하고 당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 람에 대해 들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This man met Jesus “out of the tombs.” Or to put it another way this man was living in the place where dead bodies were stored. This is maybe not as strange or as weird as it appears to us today. Bodies in the ancient world were often placed in either natural or man made caves. We know for example that the Lord Jesus' body was placed in a burial cave. Now imagine that you have no proper place to stay. Remember that this man had been driven from his home. So if you had no proper place to shelter and a fierce storm blew up what would you do? Naturally you would shelter in one of these burial caves. It would be an unpleasant place to live but better than being exposed to the elements.

Before moving on I want us to think for a moment about this poor wretched man. We know that this man wasn't born possessed by an unclean spirit. There had been a time when he lived with his family and was of sound mind. How long he had lived in this wretched state is not stated. But we can be certain that prior to his possession he had lived with, and among people who thought well of him and even had affection for him.

But now he was living in a horrible place. He had been driven away from where people lived. Now he spent his days in a place of darkness and hopelessness. Be under no illusion. This is what Satan does. He delights in ruining and destroying that which is good, pure and lovely.

We also learn that the people had tried to restrain him with chains. In other words he was being treated like a wild animal. We restrain with chains or ropes wild beast that we cannot easily control. Why would this be necessary? I can think of two possibilities. It may mean that he was attacking people, or that he was seen as being a threat or a danger to them. Or it may be that they had some compassion on him and wanted to try and prevent him from hurting himself.

Sadly the chains proved ineffective. The demoniac was incredibly powerful. No chains could hold him. This suggests that they demons were empowering him in some way. When demonic possession has progressed to a certain level the demon can control a person body. We see this in the account given to us in the Book of Acts regarding the seven sons of Sceva.

Then the man in whom the evil spirit was leaped on them, overpowered them, and prevailed against them, so that they fled out of that house naked and wounded. (Acts 19:16)

I have heard eyewitness accounts of it taking several strong men to hold down a frail woman who is possessed.

We are also told that no one could “tame” him. This is the Greek word *damazo*. It means to curb, control or restrain. Simply put this man could not be reasoned or rationed with. The man's own identity and individuality were swallowed up by the demons with him.

Finally, Mark tells us about the terrible anguish this man lived with. Day and night he was tormented by the demons inside him. The pain he was in caused him to shriek out or howl. The demons were not able to kill him but they had driven him to a place of death, and were forcing him to cut and abuse his body. Clearly the demons desired that this man hurt or even kill himself. Satan and his evil forces like nothing more that to torment and destroy human beings simply because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So picture in your mind if you are able this man. Miserable and wretched. A man to be feared and avoided. Let us continue.

이 사람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시체가 보관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이상하거나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시체는 종종 자연 동굴이나 인공 동굴에 놓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 예수의 시신이 매장 동굴에 안치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머물만한 적절한 장소가 없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대피할 적절한 장소가 없고 맹렬한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당신은 이 매장 동굴 중 하나에 피신할 것입니다. 살기에는 불편한 곳이겠지만 비바람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더러운 영에게 들린 채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정신이 건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비참한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소유하기 전에 함께 살았고 그를 좋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끔찍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는 어둠과 절망의 장소에서 그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환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는 선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파괴하고 파괴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으려 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즉, 그는 야생 동물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야수를 쇠사슬이나 밧줄로 제지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그가 그들에게 위협이나 위험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그에게 어느 정도 연민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자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체인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악마는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어떤 사슬도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악마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귀신 들림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귀신이 사람의 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 관한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이기고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사도행전 19:16) 나는 귀신 들린 연약한 여자를 붙잡기 위해 여러 명의 강한 남자가 필요하다는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무도 그를 “길들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헬라이어 다마조입니다. 억제하다, 통제하다, 제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은 추론하거나 배급할 수 없습니다. 그 남자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은 그와 함께 있는 악마들에게 삼켜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이 사람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그를 비명을 지르거나 울부짖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들은 그를 죽일 수는 없었지만 그를 죽음의 장소로 몰아가 강제로 그의 몸을 자르고 학대했습니다. 분명히 악귀들은 이 사람이 자해하거나 심지어 자살하기를 바랐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남자를 할 수 있다면 마음 속으로 그려보세요. 비참하고 비참합니다.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남자. 계속합시다.

6 When he saw Jesus from afar, he ran and worshiped Him.

Whilst I was preparing this sermon I was deeply moved by this verse. It reminded me of something I saw whilst out walking a few weeks ago. Behind my apartment block is a small hill. As I began to walk up it on one particular day I noticed a mother and two young children. A little girl and her younger brother. They were tottering slowly along as children do. Suddenly at the top of the hill a man appeared.

Immediately the children became animated. Off they went running as fast as their little legs could manage up the hill. As they ran they shouted out just one word, over and over again. Can you guess what they shouted? Yes, they shouted “Appa” (daddy). And when they reached their father he scooped them both up in his arms and hugged them. It was a beautiful scene that touched my heart. I remembered my own daughter running up to hug me when I go home from work. Now I'm lucky I she even acknowledges that I exist.

This verse touches my heart in the same way as seeing those children with their father. This wretched, miserable shunned man saw Jesus from a long way off and ran towards Him. When he arrived we are told he worshipped the Lord Jesus. Let me be a little more precise. When the demon possessed man arrived before Jesus he fell on his knees before Him. The Greek word used here is *proskuneō*. It means to pay honor, homage or respect to one who is greatly superior. The demons inside this man recognised who it was who had just got out of the boat. They quite rightly knew they were in the presence of God Himself. Let's see what happens next.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몇 주 전에 밖에 나가서 보았던 것을 생각나게 했다. 내 아파트 블록 뒤에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날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한 어머니와 두 어린 아이를 보았습니다. 어린 소녀와 그녀의 남동생. 그들은 아이들처럼 천천히 비틀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언덕 꼭대기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즉시 아이들은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그들은 그들의 작은 다리가 언덕을 관리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렸습니다. 그들은 달릴 때 단 한 마디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외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 그들은 "아빠"(아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을 때 아버지는 두 사람을 팔로 끌어안고 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갈 때 내 딸이 달려와 안아줬던 기억이 난다. 이제 나는 그녀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운이 좋습니다. 이 구절은 그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제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가 주 예수께 경배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훨씬 뛰어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경의를 표하거나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남자 안에 있는 귀신들은 방금 배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자신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매우 바르게 알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7 And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said, “What have I to do with You,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 implore You by God that You do not torment me.” 8 For He said to him, “Come out of the man, unclean spirit!”

This is the only time we know of that Jesus engaged in an actual conversation with a demon or demons. The demon initiates the conversation by literally screaming at Jesus as the top of its voice. Its question could be rephrased as; “What do you and I have in common? Or what business do you have with me?” It's also instructive to note how the demon refers to the Lord Jesus. He addresses Him quite correctly as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As I have said before there was a long held superstition that you could gain spiritual power or control over another if you knew or said their exact name. Of course this would never succeed with Jesus.

The demon then amazingly asks Jesus to swear by God that He will not torment or torture him. Why were the demons so fearful? Evidently the demons feared that Jesus would cast them out and send them to their eternal judgment immediately. Let us continue.

이것은 예수님이 악마 또는 악마들과 실제 대화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마귀는 말 그대로 예수를 가장 큰 소리로 외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 예수를 어떻게 지칭하는지 주목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는 그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아주 정확하게 부릅니다. 전에 말했듯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알거나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랫동안 미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악마는 놀랍게도 예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거나 고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라고 요청합니다. 마귀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마귀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쫓아내어 즉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합시다.

9 Then He asked him, “What is your name?” And he answered, saying, “My name is Legion; for we are many.”

Jesus had commanded the demon to come out of the man. As I have just noted, in a spiritual battle one needs to be precise about who one is fighting. Knowing the name and or title of your opponent was crucial. Being able to use an opponent's name, which represented all they were enabled you to gain control or influence over them. The demon here says its name is Legion. This is not of course a name but a reference to a number or a quantity. It is in fact a military term. It is interesting that the demons refer to themselves in this way. They don't identify themselves with a personal name but with a number. When we want to devalue someone or say that their identity or character is unimportant we give them a number instead of a name. This is what the Nazi's did with those they imprisoned in their concentration camps. Satan does not respect who we are or what we represent. Equally he does not care for, or respect the evil minions who work for him.

A legion was the largest unit of the Roman army. The size of the legion varied over time but typically it comprised between 4 and 6 thousand men. This may not have been an exact reflection of how many demons were inside this man. Remember demons cannot be trusted to tell the truth. Most probably the demon used this term to signify they were many, that they were organised, that they were ready to fight and that they truly had power over this man.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영적 싸움에서는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이름이나 직함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악마는 그 이름이 Legion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이름이 아니라 숫자나 수량에 대한 참조입니다. 사실상 군사용어다. 악마들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개인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자신을 식별합니다. 누군가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들의 정체성이나 성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름 대신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나치가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한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대표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악한 하수인을 돌보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군단은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부대였습니다. 군단의 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했지만 일반적으로 4~6,000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악마가 있었는지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악마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악마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그들이 많고, 조직되어 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진정으로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10 Also he begged Him earnestly that He would not send them out of the country.

The demons also begged the Lord Jesus not to send them out of this particular part of the world. Why did they wish to stay in this area? The bible does not say. Perhaps this being a Gentile pagan area meant they had power and control over many people. Maybe they had made this area their "home" and they felt comfortable there. I have also heard it said that Satan's kingdom is territorial. That he places certain demons and gives them a responsibility for a specific place or region. We have to be honest and confess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don't know about the spiritual world. But it certainly seems to be the case that specific areas can be more greatly oppressed than others. I have heard people who are very sensitive to a demonic presence describe certain places as having a greater concentration of evil.

I am reminded of an experience I had as a child. We were out walking with a family friend. On the top of a prominent hill now stands a parish church. We think of this site as now being a Christian place. But back in antiquity before Christianity came to the UK this was a pagan place. It was a site used for ritual worship. As we walked up the hill towards the church this family friend said she sensed the evil that once, and maybe still did inhabit this place.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e way Luke expresses their plea in his account of this incident. He has the demons saying the following.

And they begged Him that He would not command them to go out into the abyss. (Luke 8:31)

The bible tells us that During the Millennial Kingdom, Satan and the demons, will be confined to the Abyss for a thousand years (Revelation 20:1-3). So it appears that the legion of demons know they will one day be sent to a place of torment in the Abyss. So the demons here are pleading with Jesus that they not be sent early.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see how the Lord Jesus deals with them.

마귀들도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주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지역에 머물고 싶었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곳이 이방인 이교도 지역이라는 것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권력과 통제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지역을 그들의 "집"으로 만들었고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또한 사탄의 왕국이 영토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특정 악마를 배치하고 특정 장소 또는 지역에 대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게 억압될 수 있는 경우인 것 같다. 악마의 존재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악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묘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와 함께 산책 중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언덕 꼭대기에는 이제 교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트를 이제 기독교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의 고대에는 이곳이 이교도의 장소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 언덕을 올라갔을 때 이 가족 친구는 그녀가 한때, 그리고 아마도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는 악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그들의 간청을 표현한 방식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악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아 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누가복음 8:31) 성경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사탄과 마귀들이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계 20:1-3). 따라서 악마 군단은 언젠가 자신들이 심연의 고통의 장소

로 보내질 것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마귀들은 예수님께 일찍 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1 Time to wake up

As I mentioned before it is very unfashionable to speak of demons and demon possession in the church today. It's also common to dismiss the accounts of possession given to us in the bible. These people so liberal scholars tell us were primitive fools. What they were really dealing with were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They had no way of diagnosing such things and so just blamed evil spirits. It may be true that some of the cases were in deed instances of mental illness. People who are mentally ill do at times act in ways that we cannot explain. However let us wake up and recognise the influence of evil around us. Satan and his demons are still active.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see demonic possession everywhere we look. But it does mean that we become better attuned and more sensitive to the evil around us.

We need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we expose ourselves or others we care about to. Satan can and does use a variety of things as doorways through which he can influence and manipulate us. Entertainment, drugs are just two examples. Modern forms of entertainment, music, movies and books are rife these days with the devils fingerprints. I think many of us have been immersed in them so long that we no are no longer able to see them. It's time to wake up and rub the sleep from our eyes. We must avoid the occult and all fronts for Satanic influence like the plague. Let me give you the word of the Apostle Paul to think about.

Finally, brethren, whatever things are true, whatever things *are* noble, whatever things *are* just, whatever things *are* pure, whatever things *are* lovely, whatever things *are* of good report, if *there is* any virtue and if *there is* anything praiseworthy—meditate on these things.

(Philippians 4:8)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들림과 귀신들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유행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권에 대한 설명을 기각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원시적 바보들이었다. 그들이 실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진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악령을 탓했습니다. 일부 사례가 실제로 정신 질환 사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깨어나서 우리 주변의 악의 영향력을 인식하도록 합시다. 사탄과 그의 악귀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서 마귀 들림을 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악에 더 잘 적응하고 더 민감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아끼는 다른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조종할 수 있는 출입구로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마약은 두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음악, 영화 및 책은 악마의 지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것들에 몰두하여 더 이상 그것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에서 잠을 깨우고 문질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컬트와 전염병과 같은 사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전선을 피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일. (빌립보서 4:8)

2 The answer to all issues is to run to the Lord Jesus

We cannot easily imagine the desperate plight of the man possessed by Legion. How he must have longed for some solution to his problem. We do not know if his deterioration was instant or more progressive. Perhaps those who cared for him sought medical attention before eventually just driving him away. Today if we found ourselves in such a situation we would take this person to a doctor and then a psychiatrist. We would now doubt try to treat their condition with medication. Eventually we may be forced to have this person institutionalised in a mental hospital.

But this man seemed to know exactly what was needed. When he saw Jesus from afar he ran to him. What an important lesson we can draw from this. No matter what state we find ourselves in Jesus is always there as our helper. No matter how wretched sin has made us with confession and repentance the arms of Jesus are always open to us. Let us run and throw ourselves at his feet.

Legion 에 사로잡힌 남자의 절박한 곤경을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악화가 즉각적이었는지 아니면 더 점진적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를 돌보던 사람들은 결국 그를 쫓아내기 전에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의사와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약물로 그들의 상태를 치료하려는 시도를 의심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람을 정신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조력자로 계십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비참한 자백과 회개로 만들지라도 예수님의 팔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달려가 그의 발 앞에 몸을 던지자.

